

## 청소년의 가공식품 섭취실태 및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송 효 진 · 최 선 영<sup>¶</sup>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sup>¶</sup>

### A Study on Intake and Purchas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 among Adolescents

Hyo-Jin Song · Sun-Young Choi<sup>¶</sup>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sup>¶</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basic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for youth and help domestic science teachers in schools implement effective dietary education by examining youth's purchase behavior of processed foods. As a result of figuring out youth's purchas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 and the difference in accordance with social, demographic variables, they considered taste and price mainly when choosing foods. The results showed that what they consider important when checking food display information was shelf life and price. It was observed that 56% of them check additives display information in food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 In terms of demographic factors, the more likely they are a girl student, the lower grader they are, and the lower price they purchase processed food at, the better they used the nutritional knowledge learned in school. Based up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consumer's level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demands by accurately figuring out youth's purchas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s. For this, home economics education must allow youth to lead healthy diet by implementing a systematic and professional training on food additives on a basis of the research and utilization of a variety of educational media and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Key words:** processed food, food labeling, purchase cost, shelf life, purchasing behavior, adolescence

#### I. 서 론

오늘날 식품산업의 발달, 식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다양한 가공식품의 생산 및 소비가 더욱 증가되고 있다. 가공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의 원재료를 보다 맛 있고 먹기 편하며 저장성을 좋게 변형시킨 식품이다. 그런데 가공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특정 영양소를 첨가, 제거함으로써 동일

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이 가진 영양적, 관능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박미애 2010). 이러한 가공식품에는 흔히 식품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는데,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조리, 가공할 때 식품의 품질을 좋게 하고 보존성과 기호성을 향상시키고 식품의 영양가나 식품 본질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로 가공식품에는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야 하는 물질이다(이영주 2010). 또한 가공식품은 복잡

<sup>¶</sup> : 최선영, 010-4067-1386, sychoi6476@gnu.ac.kr, 진주시 가좌동 900번지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한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이지만, 편리화·기호 위주의 선택에 따른 영양적인 불균형, 전통적인 식생활 양식과의 혼란과 식미와 보존을 위한 화학 첨가제 사용의 유해성, 품질관리와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또한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가 없는 것만으로 허가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 화학적으로 합성된 물질이므로 이를 장기적으로 다량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우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되며(Wonnancott J 1986),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위생(강두영 2008)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학생인 만 13-15세는 신체적·심리적·생리적으로 급속한 성장변화를 나타내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영양은 일생의 건강 및 식습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이 시기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는 신체 발육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외형적인 신장이나 체중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정신적 발달, 성격형성, 그리고 집중력과 능력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듯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량, 입시에 대한 불안감, 사춘기의 심리적 불안정 및 조기 등교로 인하여 아침을 거르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거나 합리적인 식행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Goh EK·Park ES 2010).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영양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부족하여 식품구입 시 식품의 영양성과 안전성은 고려하지 않고 맛 또는 광고나 유행에 치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2006년 전국 7대도시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의 청소년 가공식품 섭취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소비자센터 2006), 가공식품 중 청소년이 즐겨먹는 라면류, 과자류 등 12가지 가공식품에 대한 1주일간 평균섭취량은 라면류 2.21개, 스낵과자류 3.25개, 식육가공품류 4.56조각(114g), 아이스크림류 3.60개, 음료류

2.09개, 사탕류 3.63개를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라면, 햄버거, 피자 등 식사대용 인스턴트식품의 섭취빈도에 대한 질문조사에서 주 3회이상 섭취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44%이며, 자주 섭취하는 이유는 ‘맛있어서’가 50.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가공식품을 일상에서 자주 접하고 있으나 합리적인 소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가공식품 선택·구매 시 도움이 되는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실시한 11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181,3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교육과학기술부 2012),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최고 67.96%(고등학교 남학생)로 전년도(63.59%)보다 증가한 반면, ‘매일 채소 등의 섭취율’은 24.23%로 전년도 23.50%보다 낮게 났다. 또한 ‘주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은 중학교 84.86%, 고등학교 77.18%였으며, ‘주1회 이상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중학교 64.39%, 고등학교 66.32%, ‘주1회 이상 음료수 섭취율’은 중학교 81.63%, 고등학교 85.07%로 나타나 성장기 건강한 식생활 습관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정아(2010) 연구에서도 서울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섭취실태 조사 결과 과자류, 빵/케익류, 면류, 음료류, 유가공품, 아이스크림 제품류 등은 주 1~2회를 섭취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패스트푸드류는 월 1~2회의 섭취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맛을 가장 먼저 고려하며,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가공식품 구매행동이 성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공식품 선택을 간편성과 편의성 위주의 비합리적인 식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현명한 가공식품 선택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소비의 주체이며 가공식품 섭취량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섭취실태와 이와 관련된 구매행동, 그리고 변

인에 다른 구매행동 차이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가공식품 구매에 대한 기초적인 소비교육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여 구매행동 조절과 인식을 높여 바람직한 식생활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V. 재료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의 가공식품에 대한 실태와 구매행동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진주시에 소재한 여자 중학교, 남자 중학교 각각 2개교와 남녀 공학 중학교 1개교, 총 5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3월 9일부터 21일까지이며 설문지 총 859부 중 859부를 회수하고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9부를 제외한 840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조사도구 및 연구내용

질문지는 여러 선행연구들 (이정아 2010 ; 황선애 2009 ; 김현실 2008 ; 김은정 2007 ; 장성희 2005 ; 장은지 1992)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가공식품 섭취실태, 가공식품 구매행동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학년, BMI, 용돈 받는 형태, 한달 용돈 및 가공식품 구입 비용(1일)등으로 구성하였다. BMI는 조사대상자의 체중과 신장으로부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를 계산한 후 대한비만학회에서 아시아 성인을 대상으로 설정한 기준을 사용하여 18.5미만은 저체중, 18.5이상 23.0미만은 정상체중, 23.0이상 25.0미만은 과체중, 25.0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였다. 가공식품 섭취 실태와 구매행동은 가공식품 종류별 섭취빈도, 가공식품 선택시 고려사항, 구입장소, 구매영향자,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정도, 표시정보 확인여부, 가공식품 구입시 식품첨가물 표시

확인 여부로 구성하였다. 가공식품별 섭취빈도는 ‘거의 매일(5점)’, ‘주3~4회(4점)’, ‘주 1회(3점)’, ‘월 1회(2점)’, ‘거의 먹지 않음(1점)’으로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다. 식품첨가물 함유 가공식품 구입의향 정도는 ‘절대로 사지 않음’(1점)에서 ‘상관 않고 구입(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점에 가까울수록 식품첨가물에 관심이 있고, 식품첨가물 함유 여부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가공식품 섭취실태와 구매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적용하였고, 또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구매행동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t-검정,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50.5%)과 여학생(49.5%)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고, 학년은 2학년(35.1%), 3학년(34.5%), 1학년(30.4%) 순으로 비교적 골고루 표집이 이루어졌다. BMI는 정상체중(50.0%), 저체중(39.2%) 과체중(5.0%), 비만(5.9%)순으로 나타났다. 용돈 받는 형태는 ‘필요할 때 마다’가 37.4%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 용돈은 ‘5만원 미만’이 50.2%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은 ‘1000~3000원 미만’이 44.2%였다.

##### 2. 청소년의 가공식품 섭취실태 및 구매행동

###### 1) 가공식품 섭취실태 현황

조사대상자의 가공식품별 섭취실태는 <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Category	N(%)
Sex	Male	424(50.5)
	Female	416(49.5)
Academic year	1st	255(30.4)
	2nd	295(35.1)
	3rd	290(34.5)
BMI	18.5<BMI	307(39.2)
	18.5 ≤ BMI<23	392(50.0)
	23 ≤ BMI<25	39(5.0)
	25 ≤ BMI	46(5.9)
	Non-response	54(-)
Frequency of receiving pocket money	Every day	60(7.2)
	Every week	198(23.6)
	Every month	218(26.0)
	In case of need	314(37.4)
	Others	49(5.8)
	Non-response	1
Monthly pocket money(won)	< 50,000	420(50.2)
	50,000~70,000	112(13.4)
	> 70,000	57(6.8)
	Not fixed	247(29.5)
	Non-response	4(-)
Purchase cost of processed food /day (won)	<1,000	355(42.8)
	1,000~3,000	367(44.2)
	> 3,000	108(13.0)
	Non-response	10(-)

와 같이 ‘거의 매일(5점)’, ‘주3~4회(4점)’, ‘주1회(3점)’, ‘월1회(2점)’, ‘거의 먹지 않음(1점)’ 으로 5점 척도로 점수화 하였다. 조사결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은 ‘우유 및 요구르트(3.86점)’ 이었으며, 다음으로 ‘과자류(3.14점)’, ‘사탕, 초콜

릿, 젤리, 캐러멜류(2.98점)’, ‘라면류(2.97점)’ 순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품목별 가공식품 섭취빈도를 살펴보면 라면류(46.1%), 빵류(36.6%), 빙과류(36.0%), 과자류(34.0%), 기타 음료(32.7%), 청량음료류(32.5%), 사탕, 초콜릿,

**<Table 2> The current state of intake of processed food**

Items <sup>1)</sup>	Almost everyday	Three~four times a week	Once a week	Once a month	Hardly eat	Mean (SD)
Bread type	29(3.5)	139(16.7)	305(36.6)	145(17.4)	215(25.8)	2.55(1.14)
Biscuit type	71(8.5)	277(33.3)	283(34.0)	98(11.8)	104(12.5)	3.14(1.13)
Candy, chocolate, jelly, caramel type	92(11.0)	214(25.7)	257(30.9)	123(14.8)	147(17.6)	2.98(1.25)
Instant noodle type	28(3.3)	210(25.1)	385(46.1)	134(16.0)	79(9.4)	2.97(0.96)
Ice cream type	29(3.5)	138(16.5)	301(36.0)	187(22.4)	180(21.6)	2.58(1.10)
Soft drink type	34(4.1)	141(16.9)	271(32.5)	193(23.1)	195(23.4)	2.55(1.14)
Fruit juice type	49(6.0)	154(18.8)	219(26.8)	192(23.5)	203(24.8)	2.58(1.22)
Other beverage types	42(5.1)	134(16.2)	271(32.7)	177(21.4)	204(24.6)	2.56(1.17)
Milk and yogurt	334(40.4)	222(26.9)	146(17.7)	67(8.1)	57(6.9)	3.86(1.23)
Chewing gum type	48(5.8)	141(16.9)	218(26.2)	162(19.4)	264(31.7)	2.46(1.25)
Meat processed food type	11(1.3)	65(7.8)	179(21.5)	203(24.4)	375(45.0)	1.96(1.05)

<sup>1)</sup>Each item was measured by 5-point scales ranging from 1(barely eat) to 5(almost everyday)

젤리, 캐러멜류(30.9%), 과일주스류(26.8%)는 주 1회, 우유 및 요구르트는 거의 매일(40.4%) 섭취하고 식육 가공품류(45.0%)과 추잉껌류(31.7%)는 거의 먹지 않음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 2) 가공식품 구매행동 관련 특성

가공식품 구매행동 관련 특성 <Table 3>은 하루 동안의 가공식품 섭취횟수는 ‘가끔 먹는다’(33.9%), ‘1일 1회’(32.0%), ‘1일 2회’(22.1%), ‘1

**<Table 3> Characteristics of purchasing behavior of processed food**

	Category	N	%
Intake frequency of processed food	Never eat	36	4.3
	Sometimes eat	285	33.9
	Once a day	269	32.0
	Twice a day	186	22.1
	More than three times a day	64	7.6
Reason to eat processed food (multiple response)	For hunger and thirstiness	456	58.5
	For nutritional supplement	24	3.1
	Habitually without reason	38	4.9
	For boredom	66	8.5
	For taste	396	50.8
	For being with friends who eat processed food	39	5.0
Reason not to eat processed food (multiple response)	Others	22	2.8
	For having no pocket money	2	8.7
	For weight-control	5	21.7
	For no opportunity to eat	4	17.4
	For not wanting to eat	12	52.2
Time to eat refreshments	Others	4	17.4
	In the morning (before lunch)	44	6.0
	In the afternoon (before dinner)	589	80.1
Place to purchase processed food	At night (after dinner)	102	13.9
	Cafeteria	171	20.8
	Supermarket	296	35.9
	Snack cart	41	5.0
	Fast food store	9	1.1
	Korean snack bar	37	4.5
	Convenience store	238	28.9
	Stationery store	18	2.2
	Others	14	1.7
	Non-response	16	-
Considerations in case of choosing processed food (multiple response)	Quantity	215	25.6
	Taste	698	83.2
	Price	337	40.2
	Famous brand	37	4.4
	Nutrition	111	13.2
	Cleanliness	168	20.0
	Recommendation from friends	70	8.3
Factors affecting choosing processed food (multiple response)	Others	17	2.0
	TV ad. Internet TV	200	23.9
	Parents	202	24.1
	Nutrition knowledge	82	9.8
	Friends	477	56.9
	Experience of tasting the food	772	92.1
	Storekeeper's recommendation	35	4.2
	Siblings	186	22.2
Application of nutrition knowledge in case of choosing processed food	Location of the place where they buy the food	430	51.3
	Others	64	7.6
	Using the knowledge well	47	5.6
	Using the knowledge moderately	418	49.8
	Not using the knowledge learned	310	36.9
	Not using the knowledge because not learning it	65	7.7

일 3회 이상'(7.6%), '전혀 먹지 않는다'(4.3%)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에 응답한 학생 36명을 제외한 학생 804명에게 가공식품을 먹는 주된 이유에 대해 다중응답을 실시한 결과,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서'(58.5%), '맛이 있어서'(50.8%), '심심해서'(8.5%), '친구가 먹으니깐 따라서'(5.0%),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4.9%), '영양보충을 위해서'(3.1%), '기타'(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7대도시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비자원의 '청소년 가공식품 섭취 안전실태 조사(2006)'에서 인스턴트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이유로 '맛있어서' 50.4%, '편리해서' 19.1% 등의 결과로 맛과 편의 위주의 섭취 경향을 나타낸 것과 본 연구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가공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에 응답한 학생 36명에게 가공식품을 먹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다중응답을 실시한 결과 '먹고 싶지 않아서'(52.2%)가 가장 많았고, '체중 때문에'(21.7%), '먹을 기회가 없어서'(17.4%), '기타'(17.4%), '용돈이 없어서'(8.7%)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중 언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습니까?'라는 문항으로 간식 먹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오후(저녁식사 전)'가 80.1%로 가장 많았고, '밤(저녁식사 후)'이 13.9%, '오전(점심식사 전)'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 장소는 슈퍼마켓(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편의점(28.9%)과 매점(20.8%) 순으로 높았다

가공식품 선택 시 고려사항은 '맛이 있는 것'(83.2%)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격이 싼 것'(40.2%), '양이 많은 것'(25.6%), '위생적인 것'(20.0%) 순으로 높았다. 정경화(2010)연구에서도 맛(85.8%), 가격(84.1%), 영양우수성(34.4%), 제조회사(25.8%)순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이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맛과 가격을 우선시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 가공식품 구입 장소는 슈퍼마켓(35.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편의점(28.9%)과 매점(20.8%) 순으로 높았다. 이는 양윤희(2009)의 연구에서도 가공식품 구입 장소가 슈

퍼마켓, 편의점, 학교매점 순으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가공식품 선택 시 영향 받는 것은 '먹어 본 경험'(92.1%), '친구'(56.9%), '구입 장소까지의 거리'(5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선택 시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 정도는 '보통이다'(49.8%), '배웠지만 활용하지 않는다'(36.9%), '배우지 않아 활용할 수 없다'(7.7%), '잘 활용한다'(5.6%)순으로 나타났다. '배웠지만 활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36.9%로 '잘 활용한다' 5.6%에 비해 많이 나타난 것은 가공식품에 관한 영양교육이 제대로 실생활과 연관하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이유가 합리적이기 보다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서', '맛이 있어서', '먹고 싶지 않아서' 등의 단순하고 본능적인 이유이고,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식행동에 대해 기초적인 영양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생활에 활용 가능한 가공식품 선택 관련 영양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식품첨가물 관련 가공식품 구매 행동

### (1) 가공식품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 정도

가공식품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 정도는 <Table 4>와 같이 전체 응답자의 54.8%가 '확인한다', 45.2%가 '확인하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특히 표시정보 확인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통기간'(78.9%)이었으며, 다음으로 '가격'(48.0%), '영양성분'(24.2%), '식품첨가물'(2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박미애(2010)와 정화영(2007)의 연구에서 가공식품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으로 '유통기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4> Checking food labeling in purchasing processed food**

	Category	N	%
Checking food labeling in purchasing processed food	Check	459	54.8
	Never check	378	45.2
	Non-response	3	-
Items checked when purchasing processed food (multiple response)	Expiration date	358	78.9
	Manufacturing company (brand)	29	6.4
	Price	218	48.0
	Nutrition facts	110	24.2
	Food additives	103	22.7
	Ingredients	40	8.8
	Country of origin	44	9.7
	Others	6	1.3

## (2) 가공 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 확인 정도

가공식품 구입할 때 식품포장지에 적혀 있는 식품첨가물 표시정보를 확인하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 <Table 5>, ‘확인하지 않는다’가 56.0%로 학생들의 절반가량이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통기한, 가격 및 영양성분 등의 표시정보에 대한 확인은 높

**<Table 5> Display Information of food additives**

	Category	N	%
Checking display information	Yes	370	44.0
	No	470	56.0
Reason to check display information	For health	168	45.4
	Habitually	79	21.4
	For thinking it consumer's right	28	7.6
	For fun	50	13.5
	For being informed	34	9.2
	Others	11	3.0
Reason not to check display information	Did not know	11	2.4
	Do not believe	37	8.1
	Habitually	213	46.6
	Cannot understand the specific contents of food additives	147	32.2
	Letters of food additives is too tiny	40	8.8
Level of attitude to take food additives	Confident in selecting food without checking	9	2.0
	Non-response	13	-
	Very high	40	4.8
	High	322	38.7
	Low	340	40.8
Level of recognizing contents of food additives marked on a package	Very low	131	15.7
	Non-response	7	-
	Never know the name and its usage	73	8.7
	Have no idea because the term is difficult	331	39.5
	Know it a little	297	35.4
	Know it very well	29	3.5
Level of recognizing contents of food additives marked on a package	Do not care	107	12.8
	Others	1	.1
	Non-response	2	-

은 반면 식품첨가물에 대한 확인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학생 470명 중 미응답을 제외한 457명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고른다’가 46.6%로 가장 높은 이유로 꼽았다. 다음은 ‘식품첨가물 내용을 봐도 이해할 수가 없다’가 32.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에 대한 홍보와 표시정보 확인 방법, 내용, 의도 등에 대한 교육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식품첨가물 표시정보 확인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공식품을 구입 할 때 식품첨가물이 적게 든 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합니까?’라는 질문에 ‘거의 노력하지 않는다’(40.8%)와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15.7%)가 56.5%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이 적게 든 것을 구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아(2010), 정경화(2010), 양윤희(2009), 김은정(200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Kim HJ과 Kim MR(2005)의 연구에서는 40.9%의 응답자가 ‘그렇다’로 응답하여 식품첨가물을 적게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이 적게 든 것을 노력하는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포장재에 표시된 식품첨가물의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용어가 어려워 모르겠다’가 39.5%로 가장 높았고, ‘조금 알고 있다’ 35.4%, ‘관심 없다’

12.8%로 나타나 식품첨가물 용어의 인지 및 이해에 대한 부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식품첨가물 함유 가공식품 구입의향정도

식품첨가물 함유 가공식품을 구입의향정도 <Table 6>은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구입의향 정도를 ‘절대로 사지 않음’(1점)에서 ‘상관 않고 구입(4점)’의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4점에 가까울수록 식품첨가물 첨가여부에 관계 없이 구매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평균점수는 2.66점이었고, ‘영양강화제’(2.77점), ‘감미료’(2.76점), ‘방부제’(2.62점), ‘착색료’(2.59점), ‘MSG’(2.58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미료’와 ‘영양강화제’는 ‘경우에 따라 구입’이 각각 45.2%, 43.5%로 나타나 구입 시 상대적으로 유연한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료, 착색료, 향미증진제, 감미료, 유화제 순으로 식품첨가물 포함여부를 고려한다고 나타난 정경화(2010)의 연구에서도 평균 3점 이하로 구입의향정도를 나타내었다. 감미료, 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발색제 모두 35%이상의 학생이 ‘가능하면 사지 않는다’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김은진 2011), 화학조미료, 인공감미료, 인공색소에서 신중한 구입의사를 나타냈으며 특히 합성방부제에서는 50.3%가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여 부정적인 구입의사를 보였다(이정아 2010).

(4)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 실천 관련 특성

<Table 6> Purchase intention of food with food additives depending on types of products

	Never buy	Almost never buy	Sometimes buy	Always buy	Mean(SD)
	N(%)				
MSG	77(9.2)	332(39.6)	298(35.6)	131(15.6)	2.58(.86)
Sweetener	42(5.0)	266(31.7)	379(45.2)	151(18.0)	2.76(.80)
Color additives	77(9.2)	318(38.0)	310(37.0)	132(15.8)	2.59(.86)
Fortifying nutrient	49(5.9)	259(30.9)	364(43.5)	165(19.7)	2.77(.83)
Preservative	79(9.4)	306(36.5)	311(37.1)	142(16.9)	2.62(.88)
Total					2.66(.74)

<sup>1)</sup> Each item was measured by 4-point scales ranging from 1(never buy) to 4(always buy)



**<Table 7> Characteristics of practice to reduce food additives**

		Category	N	%
Experience to reduce food additives	Yes		327	38.9
	No		513	61.1
Path to know how to reduce food additive (N=319)		Technology or home economics teacher	55	17.2
		Other teachers except for a technology or home economics teacher	7	2.2
		Family(parents, brother/sister)	113	35.4
		Friends	4	1.3
		Internet	52	16.3
		Newspaper, TV, magazine	75	23.5
		Others	13	4.1
Practical way to reduce food additive (multiple response)		Blanch food additives in boiling water	89	37.4
		Rinse food additives with water	31	13.0
		Select lower amount of food additives	81	34.0
		Take home-made food	123	51.7
		Remove oil in food additives	45	18.9
Frequency of selecting low additive food, even expensive		Always	132	16.0
		Sometimes	646	78.3
		Never	47	5.7
		Non-response	15	-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 실천관련 특성은 <Table 7>과 같다.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 본 경험 여부는 ‘실천한 적이 없다’가 61.6%, ‘실천한 적이 있다’가 38.9%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실천해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의 습득 경로는 가족(35.4%), 신문, TV, 잡지(23.5%), 기술·가정 선생님(17.2%), 인터넷(16.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술·가정 교과에서 타 교과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지만,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는 ‘가공식품보다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가 51.7%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을 끓는 물에 데친다’(37.4%),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첨가물 함량이 적은 가공식품을 선택한다’(34.0%), ‘가공식품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덩어리를 제거한다’(18.9%), ‘가공식품을 물에 헹구어 섭취한다’(13.0%)순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 선택 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식품첨가물이 적게 함유된 식품이라면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경우에 따라 선택하겠다’ 78.3%, ‘항상 선택하겠다’ 16%, ‘선택하지 않겠다’ 5.7%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식품첨가물이 적게 함유된 식품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구매행동 차이

#### (1) 가공식품 섭취빈도와 구입장소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섭취빈도와 가공식품 구입장소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가공식품 섭취 빈도에서는 성별, 학년, 한달 용돈 및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공식품 섭취를 자주하고, 학년은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에 비하여, 한달 용돈은 7만원 이상이

〈Table 8〉 Intake frequency and purchase places of processed food

	Category	Intake frequency M(SD)	Purchase places N(%)			
			Cafeteria	Supermarket	Convenient store	Others
Sex	Male	1.77(.97)	52(12.5)	157(37.7)	135(32.5)	72(17.3)
	Female	2.13(1.04)	119(29.2)	139(34.1)	103(25.2)	47(11.5)
	t(p)	-5.255 <sup>***</sup> (.000)	36.826 <sup>***</sup> (.000)			
Academic year	1st	2.02 <sup>a</sup> (1.04) <sup>1)</sup>	51(20.6)	75(30.2)	77(31.1)	45(18.1)
	2nd	1.82 <sup>b</sup> (.96)	57(19.7)	114(39.4)	86(29.8)	32(11.1)
	3rd	2.01 <sup>a</sup> (1.04)	63(22.0)	107(37.3)	75(26.1)	42(14.6)
	F(p)	3.653 <sup>**</sup> (.026)	9.589(.143)			
BMI	18.5<BMI	2.02(1.02)	63(21.0)	108(36.0)	81(27.0)	48(16.0)
	18.5 《BMI<23	1.95(1.01)	83(21.6)	143(37.1)	107(27.8)	52(13.5)
	23 《BMI<25	1.69(.95)	7(18.4)	12(31.6)	13(34.2)	6(15.8)
	25 《BMI	1.65(1.02)	10(21.7)	12(26.1)	18(39.1)	6(13.0)
	F(p)	2.592(.052)	5.171(.819)			
Monthly pocket money (won)	< 50,000	1.89 <sup>b</sup> (1.02)	78(18.9)	159(38.6)	111(26.9)	64(15.5)
	50,000~70,000	2.13 <sup>ab</sup> (1.02)	27(24.8)	36(33.0)	32(29.4)	14(12.8)
	> 70,000	2.32 <sup>a</sup> (.91)	17(30.4)	11(19.6)	17(30.4)	11(19.6)
	not fixed	1.88 <sup>b</sup> (1.02)	48(19.7)	89(36.4)	78(32.0)	29(11.9)
	F(p)	4.493 <sup>**</sup> (.004)	13.443(.144)			
Cost spent on processed food/day(won)	<1,000	1.61 <sup>b</sup> (.90)	61(17.4)	148(42.3)	103(29.4)	38(10.9)
	1,000~3,000	2.18 <sup>a</sup> (.98)	75(21.1)	114(32.0)	109(30.6)	58(16.3)
	> 3,000	2.22 <sup>a</sup> (1.15)	34(31.5)	31(28.7)	24(22.2)	19(17.6)
	F(p)	36.848 <sup>***</sup> (.000)	21.621 <sup>**</sup> (.001)			

\* p<.05, \*\* p<.01, \*\*\* p<.001

1) <sup>a-c</sup>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다른 집단에 비하여, 1일 가공식품 구입비용은 1000~3000원 미만과 3000원 이상이 가공식품 섭취를 더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가공식품 섭취에 관한 교육이 더욱 중점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가공식품 영양교육 시 한달 용돈과 1일 가공식품 구입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구입 장소는 성별과 1일 가공식품 구입비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녀 모두 ‘슈퍼마켓’에서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나, 여학생은 ‘매점’을, 남학생은 ‘편의점’을 상대적으로 더 잘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일 가공식품 구입비용은 ‘1000원 미만’과 ‘1000~3000원 미만’이 ‘슈퍼마켓’을, ‘3000원 이상’은 ‘매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가공식품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여부와 노력여부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 확인여부<표 Table>는 학년과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확인한다’의 비율이 49.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확인한다’의 비율이 ‘2학년’은 43.7%, ‘3학년’은 39.3%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짐을 알 수 있다.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은 ‘1000원 미만’이 ‘확인한다’의 비율이 4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이 높을수록 가공식품 구입 시 표시정보 확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2010)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공식품 구매 행동에 관한 연계성을 가진 지속력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이 적게 든 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여부는 <Table 9>와 같이 학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노력한다’에서 ‘1학년’이 53.4%, ‘2학년’이 40.5%, ‘3학년’이 37.8% 순으로 나타나 학년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이 적게 든 것을 구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가공식품 구입정도와 영양지식 활용정도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구입정도와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구입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구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구입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3.399, p=.034$ ).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학년보다 3학년이 식품첨가물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가공식품을 구입할 의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공식품 선택 시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정도는 <Table 10>과 같이 성별, 학년 및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남학생은 ‘잘 활용한다’에서 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배웠지만 활용하지 않는다’가 3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에서 ‘배웠지만 활용하지 않는다’가 47.2%로,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은 ‘1000원 미만’은 ‘잘 활용한다’가 8.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000원 이상’은 ‘배웠지만 활용하지 않는다’

<Table 9> Checking food labeling and practical ways to reduce food additives

N(%)

Category	Checking food labeling in purchasing food additives		Practical way to reduce food additives		
	Check	Never check	Try	Never try	
Sex	male	195(46.0)	229(54.0)	194(46.2)	226(53.8)
	female	175(42.1)	241(57.9)	168(40.7)	245(59.3)
	t(p)	1.311(.252)		2.575(.109)	
Academic year	1st	127(49.8)	128(50.2)	134(53.4)	117(46.6)
	2nd	129(43.7)	166(56.3)	119(40.5)	175(59.5)
	3rd	114(39.3)	176(60.7)	109(37.8)	179(62.2)
	F(p)	6.081*(.048)		14.823**(.001)	
BMI	18.5<BMI	130(42.3)	177(57.7)	132(43.4)	172(56.6)
	18.5 ≤ BMI<23	181(46.2)	211(53.8)	174(44.6)	216(55.4)
	23 ≤ BMI<25	18(46.2)	21(53.8)	15(38.5)	24(61.5)
	25 ≤ BMI	19(41.3)	27(58.7)	20(43.5)	26(56.5)
	F(p)	1.252(.742)		.576(.902)	
Monthly pocket money(won)	< 50,000	187(44.5)	233(55.5)	184(43.9)	235(56.1)
	50,000 ~ 70,000	47(42.0)	65(58.0)	44(39.6)	67(60.4)
	> 70,000	18(31.6)	39(68.4)	26(47.3)	29(52.7)
	not fixed	116(47.0)	131(53.0)	106(43.4)	138(56.6)
	F(p)	4.684(.196)		1.020(.796)	
Cost spent on processed food/day(won)	<1,000	175(49.3)	180(50.7)	155(43.8)	199(56.2)
	1,000 ~ 3,000	153(41.7)	214(58.3)	154(42.4)	209(57.6)
	> 3,000	39(36.1)	69(63.9)	50(47.2)	56(52.8)
	F(p)	7.540*(.023)		.758(.685)	

\* p<.05, \*\* p<.01

**〈Table 10〉 Purchase of processed food and using nutritional knowledge taught at school**

Category	Purchase degree	Using the knowledge very well	Using the knowledge moderately	Using the knowledge learned	Not using the knowledge because not learning it	
		N(%)				
Sex	Male	2.60(.79)	35(8.3)	203(47.9)	150(35.4)	36(8.5)
	Female	2.73(.68)	12(2.9)	215(51.7)	160(38.5)	29(7.0)
	t(p)	-2.520 <sup>*</sup> (.012)	12.601 <sup>**</sup> (.006)			
Academic year	1st	2.57 <sup>b</sup> (.73)	20(7.8)	156(61.2)	71(27.8)	8(3.1)
	2nd	2.67 <sup>ab</sup> (.75)	10(3.4)	155(52.5)	102(34.6)	28(9.5)
	3rd	2.74 <sup>a</sup> (.73)	17(5.9)	107(36.9)	137(47.2)	29(10.0)
	F(p)	3.399 <sup>*</sup> (.034)	46.253 <sup>**</sup> (.000)			
BMI	18.5<BMI	2.70(.73)	17(5.5)	150(48.9)	119(38.8)	21(6.8)
	18.5 ≦BMI<23	2.66(.74)	23(5.9)	193(49.2)	143(36.5)	33(8.4)
	23 ≦BMI<25	2.52(.77)	1(2.6)	25(64.1)	11(28.2)	2(5.1)
	25 ≦BMI	2.64(.72)	3(6.5)	21(45.7)	17(37.0)	5(10.9)
	F(p)	.717(.542)	46.253 <sup>**</sup> (.000)			
Monthly pocket money (won)	< 50,000	2.62(.72)	20(4.8)	217(51.7)	153(36.4)	30(7.1)
	50,000 ~ 70,000	2.76(.84)	10(8.9)	49(43.8)	40(35.7)	13(11.6)
	> 70,000	2.74(.76)	-	31(54.4)	21(36.8)	5(8.8)
	not fixed	2.69(.72)	17(6.9)	118(47.8)	96(38.9)	16(6.5)
	F(p)	1.409(.239)	11.483(.244)			
Cost spent on processed food/day(won)	<1,000	2.61(.75)	30(8.5)	169(47.6)	124(34.9)	32(9.0)
	1,000 ~ 3,000	2.70(.74)	14(3.8)	195(53.1)	135(36.8)	23(6.3)
	> 3,000	2.68(.73)	1(.9)	52(48.1)	46(42.6)	9(8.3)
	F(p)	1.467(.231)	16.130 <sup>*</sup> (.013)			

<sup>\*</sup> p<.05, <sup>\*\*</sup> p<.01

<sup>1)</sup> <sup>abc</sup>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 42.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공식품 영양지식 교육은 ‘배웠지만 활용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높은 여학생, 3학년,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이 높은 집단에서 중점적으로 실천 가능한 합리적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V. 요약 및 결론

경남 진주시 청소년 840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9일부터 21일까지 가공식품 섭취실태 및 구매 행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50.5%)과 여학생(49.5%)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고, 학년은 ‘1학년’ 30.4%, ‘2학년’ 35.1%, ‘3학년’ 34.5%로 비교적 학년별로 골고루 표집이 이루어졌다. 하루 동안의 가공식

품 섭취횟수는 ‘가끔 먹는다’(33.9%)와 ‘1일 1회’(32.0%)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가공식품을 주로 먹는 이유에 대해 다중응답을 실시한 결과,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말라서’(58.5%), ‘맛이 있어서’(50.8%), 가공식품 선택 시 고려사항은 ‘맛이 있는 것’(83.2%)이 가장 높았다.

가공식품 선택 시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 정도는 ‘보통이다’(49.8%)와 ‘배웠지만 활용하지 않는다’(36.9%)의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함으로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청소년들의 식행동에 대해 기초적인 영양 교육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공식품 구입 시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지에 대해서는 54.8%가 ‘확인한다’였으며 특히 표시정보 확인 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통기간’(78.9%)과 ‘가격’(48.0%)의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식품첨가물 함유된 가공식품을 구입의향 정도는 평균점수는 2.66점이었고, ‘영양강화제’(2.77점), ‘감미료’(2.76점), ‘방부제’(2.62점), ‘착색료’(2.59점), ‘MSG’(2.58점)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실천해 본 경험 여부는 ‘실천한 적이 없다’가 61.6%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이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실천해 본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공식품 구입 시 표시정보는 학년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이 낮을수록 더 잘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 정도는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을 더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 섭취를 줄이는 방법은 1일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이 낮을수록 실천한 경험이 더 있다고 하였다. 가공식품 선택 시 가격이 비싸더라도 식품첨가물이 적게 함유된 식품을 선택하겠다는 의향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보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구매행동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공식품 구입 시 맛과 가격위주의 선택을 하며, 표시정보 확인을 하는 비율이 높으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보다 유통기한이나 가격정보를 우선시하여 확인하는 점,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가공식품 구매행동이 아닌 단순하고 본능적인 구매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청소년 식행동에 대해 기초적인 영양 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식품 관련 영양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둘째,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식품첨가물의 내용이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학교와 국가적 측면에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에 대한 적

극적인 홍보와 함께 실생활에서 표시정보 확인이 용이하고 합리적인 가공식품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 표시제에 관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가공식품 구매행동이 성별, 학년, 1일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 등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변인들에 따른 가공식품 구매행동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공식품 영양교육 시 한달 용돈과 1일 가공식품 구입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소비교육을 병행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교육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들이 식품첨가물의 기능, 규제와 안전성에 관해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첨가물이 식품공학적으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첨가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편향된 인식을 가질 우려가 있으므로 식품첨가물의 식품 가공적 기능과 법적 규제, 안전성 연구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과 균형을 이루어 교육을 실시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해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진주지역에서만 이루어졌으므로 청소년의 가공식품 실태와 구매행동과 식품첨가물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자주적인 소비 주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공식품 섭취실태와 구매행동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의 가정과 교사들이 효과적인 식생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가공식품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맛이 있는 것과 가격이 싼 것 순이었으며, 표시정보 확인 시 중요

하게 보는 것은 유통기간과 가격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공식품 구입 시 식품첨가물 표시정보는 56%가 확인하지 않으며,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식품첨가물이 적게 든 것을 구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 활용정도는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가공식품 구입비용(1일)이 낮을수록 학교에서 배운 영양지식을 더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가공식품 구매행동이 아닌 단순하고 본능적인 구매행동을 하고 있어 가공식품 섭취와 관련된 청소년 식행동에 대해 기초적인 영양 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가공식품 관련 영양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강두영 (2008). 제주지역 중학생의 가공식품 구매 행동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연구. 제주대학교, 33-45, 제주

교육과학기술부(2012). 11'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10, 22-24

김은정 (2007). 가공식품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중학생의 인식 및 구매행동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58-62, 서울

김은진 (2011). 경남 일부지역 고등학생들의 가공식품 섭취실태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경남대학교, 43-55, 마산

김현실 (2008). 고교생의 영양지식에 따른 간식구매행동조사. 숙명여자대학교, 18-29, 서울

박미애 (2010). 울산지역 고등학생의 가공식품 이용실태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27-38, 울산

소비자안전센터 (2006). 청소년 가공식품 섭취 안전실태 조사. 한국소비자원, 12-20

양윤희 (2009). 인천지역 일부 중학생의 가공식품

섭취 실태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양대학교, 11-30, 서울

이영주 (2010). 고등학생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과 가공식품 구매행동 - 인천지역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15-28, 서울

이정아 (2010). 서울지역 중학생의 가공식품 섭취 실태와 구매행동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인식. 동국대학교, 20-39, 서울

장성희 (2005). 초등학생의 간식섭취실태와 어머니의 인식도 조사. 전남대학교, 28-43, 광주

장은지 (1992). 식품첨가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benefit과 risk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16-24, 서울

정경화 (2010). 서울지역 중학생들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지식수준이 가공식품 구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13-36, 서울

정화영 (2007). 고등학생의 가공식품이용실태와 식품첨가물에 대한 연구-광주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21-42, 광주

황선애 (2009). 어머니의 식품첨가물 인식에 따른 자녀의 간식 습관과 기호도 조사. 영남대학교, 12-30, 경산

Kim HJ, Kim MR (2005). Consumer attitudes towards food additive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5(1):126-135

Goh EK, Park ES (2010). Intake of processed food and perceptions of food label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Kor Assoc Human Ecology* 19(1):179-180

Wonnancott J (1986). Food Additives. *Nutri Food Sci.* 1(2):20-21

2012년 11월 23일 접수  
 2013년 01월 10일 1차 논문수정  
 2013년 01월 14일 2차 논문수정  
 2013년 01월 19일 게재확정